

한일양국간 도시부부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A Comparison of the Time use of Urban Husbands and
Their Wives in Korea and Japan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동학과

교수 이기영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이연숙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교수 김외숙

대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조희금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 : Ki Young L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Associate Prof. : Yon Suk Lee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Air & Correspondence Univ.

Prof. : Oi Sook Kim

Dept. of Home Management, Taegu Univ.

Associate Prof. : Hee Keum Cho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ime use patterns of Korean working couples with those of Japanese counterparts. The data for 240 Korean couples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living in Seoul and 162 Japanese couples living in Tokyo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time diary. The time use patterns of coupl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employed status of wiv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similar time use patterns were found between couples of two country. However, the amount of time allocated for daily activities was found to be somewhat different. The amount of time spent by husbands on paid and house work was foun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wives employment status. The Korean husbands of full-time employed wives and the Japanese husbands of part time employed wives spent the longest time on paid work. The Japanese husbands of full-time employed wives spent much more time on housework than those of Korean counterparts did. The social-cultural time of Korean couples was generally longer than that of Japanese couples. The Korean couples spent more time on watching TV, whereas the Japanese couples used more time doing family activities, hobbies, and moving for social-cultural activities.

1. 서론

1. 문제의 제기

시간은 하루에 24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자원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이나 가족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가족의 시간배분방식은 그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양식과 생활문화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 국민의 생활양식과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좋은 척도가 되며, 국제적인 생활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생활시간 배분방식에 관한 연구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자료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실증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비교적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일지법에 의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소규모로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 또 한국방송공사(KBS)와 일본국영방송(NHK)의 국민생활시간조사가 2~5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표본의 크기가 크다는 점에서 유용하나 조사목적이 방송시간 편성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의 다면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과거의 역사로 인한 편견때문에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이 불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 국민의 생활시간 사용방식에 대한 비교·연구는 일본 국민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양국의 생활시간은 KBS와 NHK의 국민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980년대 이후 부분적으로만 비교가 가능할 뿐인데, 방송국 조사라는 특성으로 인해 가정생활시간내용의 세부적인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양국의 생활상황이나 문화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 조사시기 및 행동분류방식을 일치시킨, 생활시간의 한일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근로자가정의 부부를 조사 대상으로 동일한 조사법을 적용하여 양국 부부의 시간배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특히 부인의 취업여부 및 근무형태는 부인 자신의 시간사용 및 가족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부인의 근무형태별로 부부의 평일과 휴일의 생활시간을 국제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일 양국 생활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 근로자 부부의 시간사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1. 한일 양국의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평일과 휴일의 생활시간 구조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한일 양국의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평일과 휴일의 생리적 시간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 한일 양국의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평일과 휴일의 수입노동시간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4. 한일 양국의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평일과 휴일의 가사노동시간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5. 한일 양국의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평일과 휴일의 사회문화적 시간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시간의 국제비교

생활시간의 국제비교는 생활시간의 분석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지표의 비교와는 다르게 대상 국가간의 생활양식이나 생활문화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언어 및 생활문화가 서로 다른 국가간의 생활시간 비교는 상당한 정도의 조사상의 어려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조사된 자료의 비교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가간의 생활시간의 비교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공동조사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자의 나라에서 조사된 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첫째, 정확한 비교를 위해 조사방법 및 생활시간 분류를 통일하여 공동조사를 하는 것은, 조사에 따르는 시간 및 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사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인 공동조사는 최초로

생활시간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헝가리의 Szalai에 의해 주도되었다. Szalai는 '사회과학 연구와 자료조사를 위한 유럽협력센터(The European Coordination Centre for Research and Documentation in Social Sciences)'와 UN의 지원을 받아 1964~1966년에 걸쳐 12개국의 생활시간을 조사하였는데, 조사 대상국은 프랑스, 벨기에, 동독, 서독, 미국,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불가리아, 러시아, 페루의 12개국이었다. 조사방법은 시간일지(time-budget)를 면접법을 통해 수집하여 분석한 것으로, 조사대상이 약 30,000명에 이르며 조사기간도 2년 이상 걸린 방대한 규모의 연구였다(Szalai, 1972). 이 조사는 도시화되고 공업화된 국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후 개별국가에서의 조사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북수국가간의 공동조사는 북유럽에서 핀란드와 헝가리의 공동조사를 제외하고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대규모로 생활시간을 공동조사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두번째의 유형은 개별국가에서 이루어진 생활시간의 조사 자료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국가에서 조사된 생활시간 자료로 국가간의 비교를 하는 것은 표집방법, 생활시간의 분류방법 및 코딩 체계의 차이로 인해서 직접 비교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1980년대 중반 '생활·노동조건에 관한 유럽재단'에 의해 설립된 '국제생활시간 아카이브(MLTBA-Multi-national Time Budget Archives)'가 자료를 공동으로 처리하여 생활시간 자료를 공통의 분류체계로 재코드화하는 방법에 의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이 MLTBA에 의해 이후 많은 국가간의 생활시간 비교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에 의한 비교는 공유하고 있는 자료의 일정 수준까지만 분석할 수 있으며, 어떤 특정한 관심사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최근에 일고 있는 국가간의 생활시간 공동조사는 특히 「국제생활시간학회」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수집, 코딩, 제시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생활시간을 통한 생활문화의 비교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

표적인 것으로 유럽통계연합(EUROSTAT)에서는 1995-1996년에 유럽지역의 생활시간 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생활행동의 분류를 통일시키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하베이, 1995, 3-6).

2. 생활시간의 한일비교

먼저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생활시간 조사를 보면, 일본은 2차대전 전인 1941년, 처음으로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필요에 의해 NHK에서 실시되었다. 그후 1960년부터는 대체로 5년에 1번씩 전국적인 규모로 생활시간 조사를 하고 있으며(伊藤セツ외, 1983), 1976년에는 總務廳이 「社會生活基本調査」라는 이름으로 생활시간을 조사하였는데 이것도 매 5년마다 1번씩 실시되고 있다. 또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 그룹인 伊藤 등은 1975년 부터 동경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부부를 대상으로 5년에 1번씩 생활시간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처음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생활시간조사가 KBS에 의해 실시되었다. KBS는 NHK의 생활시간 분류방법을 받아들여, 1983, 1985, 1987, 1990, 1993년에 「국민생활시간」을 조사하였다. 한편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1979, 1983, 1988, 1993년에 조사하여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 보고서」를 내고있다. 이외에 전국적인 규모가 아닌 조사로는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생활시간을 조사하는 소규모의 것으로, 대체로 주부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한경미, 1991; 조희금, 1990; 1993), 최근에는 서울시 거주 근로자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도 있다(이기영 외, 1994).

한편, 한국과 일본 사이는 역사적으로 빈번하게 영향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여러면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인 지표상의 차이와 생활문화적인 차이점 또한 그에 못지 않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점 및 공통점은, 일상생활의 모습을 통해 양국의 생활양식이나 생활문화까지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생활시간 연구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의 조사를 통하여 양국의 생활시간을 비교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으며, 각국에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비교·분석한 연구도 많지 않다.

본격적인 비교연구는 鈴木泰가 1990년에 조사된 KBS와 NHK의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한일간의 생활시간을 비교한 것이다(鈴木泰, 1993). KBS의 국민생활시간 조사는 NHK의 조사방법과 유사하며, 생활행동의 분류도 기본적으로 NHK의 분류방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부분적으로는 생활시간의 한일 비교가 가능하다.

鈴木泰의 분석에 의하면 수면시간의 경우 남성은 양국이 비슷하나 여성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30분 정도 길며, 일하는 여성의 경우 근무시간이나 통근시간 역시 한국이 일본보다 길었다. 그러나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한국이 각 요일 평균 2시간 정도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한국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이렇게 짧은 가장 큰 이유로 파출부의 존재를 들고 있다(鈴木泰, 1993, 168-177). 그러나 가사노동시간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를 이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또 일본사람들이 한국인보다 활발하게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었으며, 교제시간은 한국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미는 취업주부의 생활시간 분석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취업주부 시간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취업주부가 가사노동시간은 가장 짧고, 수입노동시간은 가장 길어서 총노동시간이 가장 길다고 분석하고 있다(한경미, 1991, 75-77). 그러나 이 연구에서 비교한 각국의 자료는 조사년도도 각각 다르고 생활행동의 분류도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생활시간의 비교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즉, 생활시간으로 복수의 국가를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시기나, 1주일 중 휴일의 일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그 특성, 어느 한 행동이 이루어지는 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矢野, 1996). 鈴木泰의 비교분석은 구체적인 비교에서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나 여성의 수입노동시간 등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양국간 여성의 취업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시간일지표와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시간일지표는 한일 양국에서 각각 만든 일지표틀 기초로 한일양국의 연구자들¹⁾이 2회에 걸친 공동회의를 거쳐 완성한 것으로 생활행동을 크게 생리적 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으로 나눈 후, 29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생활행동을 예시하고 분류하는 작업에서는 한일 양국의 생활문화의 차이로 인한 양국 연구자들 사이의 이견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시간일지표는 활동별 시간사용 이외에 활동을 한 장소와 함께 있었던 사람도 조사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활동별 시간 사용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질문지에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심리적 변수를 측정하는 문항과 함께 시간일지표로서 파악하기 어려운 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18세이하의 자녀 1명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근로자 남편과 그 부인으로서 한국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부이고, 일본의 경우 도쿄(東京)의 세타가야구(世田谷區)²⁾에 거주하는 부부이다.

표집은 한국의 경우 가정학을 전공한 조사원들에게 조사대상의 조건을 주지시키고 조사원 1명당 10명 이내의 부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1990년에도 세타가야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그 때의 표집방

법과 동일하게 구의 홍보지에 의한 공모 및 유치원의 부모에 대한 공모를 통하여 조사대상을 모집하였고, 1990년의 피조사자에게도 다시 연락하여 원하는 대상을 이 조사에 포함시켰다.

조사한 표본은 한국 부부 240쌍, 일본 부부 162쌍이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 부부 214쌍, 일본 부부 136쌍의 질문지 및 시간일지표 자료이다.

조사는 한일 양국 모두 1995년 10월 16일에서 11월 4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조사원이 부부 한 쌍에게 <부부공용 질문지> 1부와 <남편용> 및 <부인용>의 질문지와 시간일지표 2부씩(<평일용>과 <휴일용>)을 배부하고,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면접을 하거나 피조사자에게 기록을 의뢰하였다.

한일 양국의 자료는 미리 정한 원칙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컴퓨터 디스켓에 입력한 상태로 교환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방법으로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시간사용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한일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t 검증을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나라별로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표 I>과 같다.

먼저 연령을 보면 한일공통으로 부부 모두 30대가 가장 많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평균연령이 남편 39세, 부인 36세이나 일본의 경우 남편이 43세이고 부인은 41세로서 한국의 조사대상자가 일본의 대상자보다 4~5세 젊다.

1) 일본측 연구자들은 伊藤セツ, 堀内かおる, 天野寛子, 天野晴子を 포함한 총 8인이다.

2) 세타가야구는 동경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구로서, ① 고령화율은 동경도내의 다른 구와 거의 비슷하지만,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이 일찍부터 실시되고 있고, ② 교통이 편리하고 정보가 많으며 주민의식이 높고, ③ 지가의 상승이 급격하고 주거비가 높으며, ④ 고령자를 포함한 단독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는 지역이다(天野寛子 外, 1993, 26-27).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집 단		한 국				일 본			
		남 편		부 인		남 편		부 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연령	20-29	13	6.1	44	20.7	6	4.7	12	8.5
	30-39	112	52.3	100	46.9	60	44.2	61	45.7
	40-49	60	28.0	61	28.6	52	38.0	49	35.7
	50이상	29	13.6	8	3.8	18	13.2	14	10.1
	평균 (세)	38.8		36.1		42.8		40.8	
교육 수준	중졸미만	4	1.9	19	9.3	4	3.1	1	0.8
	고졸	50	24.2	76	37.3	20	14.7	39	28.7
	전문대졸	16	7.9	21	10.3	6	4.7	47	34.9
	대졸이상	137	66.2	88	43.1	101	74.4	44	32.6
취업 형태	전일제	214	100.0	82	39.4	133	100.0	79	58.1
	시간제	—	—	25	12.0	—	—	29	21.3
	무직(주부)	—	—	99	47.6	—	—	27	19.9
직업*	판매서비스직/노무직	41	19.2	36	35.0	12	8.8	8	9.1
	사무직	47	22.0	32	31.1	42	30.9	46	52.3
	전문기술직	62	29.0	34	33.0	40	29.4	32	36.4
	관리직	64	29.9	1	1.0	33	24.3	2	2.3
소득	100만원 이하	34	15.9	175	81.4	—	—	—	—
	101-150만원	66	30.8	27	12.6	—	—	—	—
	151-200만원	67	31.3	9	4.2	—	—	—	—
	201만원 이상	47	22.0	4	1.9	—	—	—	—
	8만엔 미만	—	—	—	—	3	2.2	46	33.8
	8 - 15만엔미만	—	—	—	—	—	—	16	9.5
	15 - 25만엔미만	—	—	—	—	15	10.2	19	14.0
	25 - 35만엔미만	—	—	—	—	25	18.4	33	23.5
	35 - 50만엔미만	—	—	—	—	53	38.2	20	14.7
	50만엔 이상	—	—	—	—	40	29.4	2	1.5
가사 보조자	유	50 (23.4)				24 (18.0)			
	무	164 (76.6)				109 (82.0)			

* 직업 중 부인의 직업은 전일제와 시간제로 취업한 부인만 대상으로 하였음.

교육수준은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많은 특성을 보이고, 한국 부인의 경우 전문대 졸업생은 일본보다 훨씬 적으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의 경우 여자전문대학이 발달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인의 취업형태를 보면 한국의 조사대상은 전일제로 일하는 비율이 39%, 시간제로 일하는 비율이

12%, 전업주부가 48%이고, 일본은 전일제 58%, 시간제 21%, 전업주부 20%이다. 이러한 비율은 비확률적인 표집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한일 양 기혼여성의 취업형태별 비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지만, 공식적 통계자료(김영옥, 1995)에 의하면 여성의 시간제노동자 비율이 1993년의 경우 일본은 여성노동자의 31.8%이고, 우리나라는 8.4%로서 일본의 기혼여성이 한국 가정보다 시간제로 일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부 이외의 직업분포를 보면, 남편의 경우 한국의 조사대상자는 일본보다 판매서비스직과 노무직, 관리직의 비율이 더 많고, 사무직과 전문기술직은 더 적다. 부인의 경우 한국의 조사대상자는 판매서비스 직/노무직, 사무직, 전문기술직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반면, 일본의 부인은 사무직이 조사대상의 반을 넘고 있으며(52%), 판매서비스/노무직 비율은 1할미만(9%)이다.³⁾

가사보조자 유무를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가사보조자가 있는 비율이 5% 더 많다.

V. 결과 및 해석

1.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한일 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비교

1) 평일

한일 양국의 근로자가정 부부의 평일 생활시간을 부인의 근무형태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생활영역별 시간양에서 대체로 비슷하다. 우선 남편들의 평일의 시간사용을 보면, 양국 모두 부인의 취업여부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하루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수입노동과 관련된 일에 보내고 있으며, 나머지 시간은 최소한의 사회문화적 활동과 가사노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생리적 활동에 소요하고 있다.

<표 2>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한일 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³⁾

(단위 : 시:분)

생활시간 구분	한 국						일 본					
	전일제 (N=82)		시간제 (N=25)		전업주부 (N=99)		전일제 (N=74)		시간제 (N=28)		전업주부 (N=27)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평 일												
생리적 시간	9:41	9:38	9:57	9:48	9:58	11:05	9:54	9:47	9:47	10:22	10:09	11:03
수입노동시간	11:31*	9:02	10:59	6:53	11:06*	0:25	10:52	8:42	11:47	6:02	11:31	0:45
가사노동시간	0:22**	3:20	0:17	4:16	0:13	7:34	0:50	3:30	0:05	4:35	0:19	7:38
사회·문화적 시간	2:27	2:00	2:46	3:02	2:36***	4:54	2:24	2:01	2:21	3:31	2:01	4:34
전체합계	▽24:01	▽24:00	23:59	▽23:59	23:58	▽23:59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휴 일												
생리적 시간	12:53**	12:16	12:26	11:33	12:39*	11:52	12:03	11:52	12:45	11:36	13:10	11:56
수입노동시간	0:49	0:24	1:02	1:43*	0:56***	0:01	0:44	0:17	0:40	0:12	0:06	0:04
가사노동시간	2:08*	5:23*	1:08	4:18*	1:38***	4:47**	3:00	6:21	1:07	5:49	2:51	6:32
사회·문화적 시간	8:10	5:57	9:25	6:26	8:46**	7:16**	8:13	5:31	9:28	6:24	7:53	5:28
전체합계	▽24:00	▽24:00	24:01	▽24:00	23:59	▽23:56	24:00	24:01	24:00	24:01	24:00	24:00

3) <표 2>부터 <표 6>까지 한국 부부의 생활시간에 표시된 * 기호는 한일 양국의 대응하는 부부간의 생활시간의 차이를 t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의 유의도 수준을 나타낸다. (* p<.05 ** p<.01 *** p<.001)

그러나 보다 세밀히 고찰해 보면 남편의 생활영역 별 시간양은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라 양국간에 차이를 보여, 수입노동시간에 있어 한국은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11시간 31분)이 가장 긴데 반해, 일본은 시간제 취업주부 남편(11시간 47분)이 가장 길고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10시간 52분)은 가장 짧다. 우리나라의 남편들은 부인이 전일제로 취업한 경우에 자신도 바깥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일본의 남편들은 오히려 자신의 수입노동시간을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사노동시간은 한국이나 일본 모두에 있어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이 다른 주부 집단의 남편보다 길어 부인의 취업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촉진시킴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50분으로, 한국의 남편보다 2배 이상 길다. 부인이 취업할 경우 남편에게 소득 획득의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가사의 부담이 느는 현상은 일본의 경우가 보다 현저하다.

남편의 노동시간외에 다른 생활영역 시간에 부인의 취업이 주는 영향에 있어서도 양국간에 차이를 보여, 한국의 경우에는 부인이 전일제로 취업하면 남편은 대체로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늘이고 대신 생리적 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을 줄이는 반면, 일본의 남편은 가사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을 늘이고 대신 수입노동시간과 생리적 시간을 줄인다.

한편 시간제 취업주부 남편은 일본에 있어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즉 수입노동시간은 가장 길고 가사노동시간은 가장 짧은 전통적인 노동분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간제 취업 자체의 특성, 즉 취업과 비취업의 중간적 성격으로 인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유발하는 동기가 약하다는 점과 시간제 취업 가정의 특성, 즉 부인이 시간제 취업을 하는 가정의 부부의 평균 연령이 높음으로⁴⁾ 인한 보수적인 경향이 시간배분에 반영된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에 반해 한국의 시간제 취업주부 남편의 생활시간은 대체로 전일주부 남편과 유사한 시간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부인들의 평일 생활시간을 보면 양국에서 모두 자신의 근무형태와 관련없이 생리적 시간이 가장 많은데, 다른 생활시간의 길이는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즉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 수입노동시간이 생리적시간 다음으로 많은데, 이 수입노동시간으로 인해 취업주부들은 가사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을 대폭 줄이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전일제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비취업주부에 비해 각각 4시간 14분, 4시간 8분 적으며, 여가시간은 각각 2시간 54분, 2시간 33분 적고, 생리적시간은 각각 1시간 27분, 1시간 16분 적다.

한편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전일제 취업주부가 각각 12시간 22분, 12시간 12분으로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길게 나타나 취업주부의 이중노동의 부담을 보여 주고 있다.

2) 휴일

휴일에 양국의 남편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생리적 욕구충족에 보내는 반면, 부인 중에서는 한국의 전일제 취업주부만이 12시간 이상을 생리적 시간에 보내고 있다. 일본의 취업주부들은 휴일이라고 해서 전일주부보다 특별히 더 많은 시간을 생리적 시간에 할애하고 있지는 않다.

휴일에 일본의 전일주부와 전일제 취업주부를 제외하고 양국 부부들은 생리적 시간, 사회문화적 시간, 가사노동시간, 수입노동시간의 순으로 시간을 배분한다. 반면에 일본의 전일주부와 전일제 취업주부들은 사회문화적 활동보다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한다.

평일과 비교해 볼 때 휴일에는 사회문화적 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데, 남편의 증가폭이 부인보다 훨씬

4) 본 연구의 일본측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을 보면 전일제 취업주부가정의 남편은 39.4세, 부인은 37.8세, 시간제 취업주부가정의 남편은 43.7세, 부인은 41.7세, 전일주부가정의 남편은 40.9세, 부인은 38.4세로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의 부부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다.

썬 크다. 부인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 전일제 취업주부의 증가폭이 다른 부인집단보다 크다.

사회문화적 시간 다음으로는 생리적 시간이 많이 증가하는데, 증가 정도는 집단에 따라 차이가 크다. 증가폭은 취업한 경우, 그리고 남편의 경우에 크다. 따라서 양국 모두 남편이 부인보다 휴일에 더 많이 쉬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러한 현상은 부인이 전일제로 취업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가사노동시간 역시 평일에 휴일에 증가하는데, 이는 취업한 부부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취업하지 않은 부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한다. 또 취업한 경우에 남편보다 부인의 휴일 가사노동시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나 평일에 밀린 집안일을 주로 취업주부들이 휴일에 모아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휴일의 가사노동시간은 양국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생활영역인데, 일본의 부부가 한국보다 전반적으로 긴 시간을 집안일 하는데 보인다. 일본의 전일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남편이 한국의 남편보다 각각 52분, 1시간 13분 만큼을 가사노동에 더 소비하며, 일본의 전일제 취업주부가 58분, 시간제 취업주부가 1시간 31분, 전업주부가 1시간 45분씩 한국의 주부보다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에 그 차이가 가장 커서 거의 2시간에 가까운데, 이는 鈴木泰의 1990년도의 한일간 생활시간비교에서 지적한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일본보다 2시간 짧다는 결과 - 이는 물론 평일을 포함한 평균이지만 - 와도 거의 일치한다. 일본의 전업주부는 휴일에도 상당량의 가사노동을 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시간을 줄여 한국 주부와 차이가 거의 2시간에 가까운 정도이다. 이는 한국의 전업주부의 경우는 주중에 가사일을 하고 휴일에는 쉬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일본 전업주부의 경우는 자신들의 존재를 남편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휴일에도 가사노동을 열심히 해야한다는 의식이 내재되어서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취업주부의 경우에도 일본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한국보다 길며 특히 시간제 취업주부의 경우 한국의 주부들은 평일에 비해 휴일에 별로 일을 더 많이 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휴일에 더 많은 일을 하는 일본의 시간제 취업주부와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한편 수입노동시간은 대체로 한국이 일본보다 길며, 특히 시간제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남편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한국의 시간제 취업주부의 수입노동시간이 긴 것은 시간제 노동의 특성으로 인해 휴일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은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전업주부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은 휴일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 사회에서 휴일의 휴식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한일 근로자가정 부부의 생리적 시간 비교

1) 평일

양국 부부의 평일 생리적 시간을 세부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표 3>에서와 같이 여러 항목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신변에 관한 일에서 시간제 취업주부의 남편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부부가 한국의 부부보다 더 긴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시간에 있어서는 일본의 전업주부가 한국의 전업주부보다 길다. 신변에 관한 일에 일본의 부부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일본 부부의 경우 대체로 욕조 목욕을 하고 있고, 특히 일본 전업주부의 경우는 시장을 보거나 방문객 접대, 사회활동 등을 위해서 집에서도 항상 화장을 하고 있는 생활습관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휴식에 있어서는 전일제 취업주부의 남편의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길지만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한국의 전업주부가 일본보다 31분 길다. 또, 한국의 남편들이 일본보다 식사를 더 오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휴일

양국 부부의 휴일 생리적 시간을 세부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에 한국의 남편과 부인은 일본보다 각각 28분, 37분 긴 수면시간을 갖는다. 평일에 비해 휴일의 수면시간이 늘어

〈표 3〉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부부의 생리적 시간 비교

(단위 : 시:분)

	한국						일본					
	전일제 (N=82)		시간제 (N=25)		전업주부 (N=99)		전일제 (N=74)		시간제 (N=28)		전업주부 (N=27)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평일 생리적시간												
수면	7:13	7:13	7:22	7:22	7:11	7:38	7:08	7:01	7:11	7:16	7:14	7:13
식사	1:33***	1:21	1:31	1:17	1:45*	1:44	1:16	1:28	1:19	1:32	1:31	1:46
신변에 관한 일	0:39**	0:42	0:43	0:34**	0:38**	0:31***	0:49	0:48	0:41	0:52	0:55	1:10
의료	0:00	0:01	0:00*	0:00	0:00	0:02**	0:00	0:02	0:05	0:00	0:00	0:18
휴식	0:16***	0:21	0:21	0:35	0:24	1:09*	0:41	0:27	0:31	0:43	0:29	0:37
평일 소계	▽9:41	▽9:38	9:57	9:48	9:58	11:05	9:54	9:47	9:47	10:22	10:09	11:03
휴일 생리적시간												
수면	9:12*	9:02**	9:18	8:18	9:15	8:38	8:44	8:25	8:46	8:13	9:10	8:23
식사	1:52	1:47	1:50	1:42	1:52	1:53	1:49	1:53	1:47	1:48	2:00	1:51
신변에 관한 일	0:53	0:51	0:40	0:42	0:44*	0:37**	0:52	0:53	0:38	0:39	1:00	1:00
의료	0:02	0:00	0:00	0:00	0:00	0:00*	0:02	0:01	0:00	0:02	0:05	0:03
휴식	0:54*	0:36	0:37**	0:51	0:47	0:45	0:36	0:40	1:35	0:54	0:56	0:38
휴일 소계	▽12:53**	▽12:16	12:26	11:33	12:39*	11:52	12:03	11:52	12:45	11:36	13:10	11:54

나는 정도에 있어서도 한국의 경우가 다소 길어 한국의 남편에 있어서는 수면시간이 2시간 정도 늘어난다. 부인의 경우에는 양국 모두 수면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나는데 전일제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보다 많이 증가해 한국은 1시간 49분, 일본은 1시간 24분 증가한다. 식사시간은 양국간에 유사하고, 신변에 관한 일은 전업주부 가정의 경우에 일본의 부부가 모두 한국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에 있어서는 일본의 시간제 취업주부의 남편이 한국보다 1시간이나 길며 전일제 취업주부의 남편은 한국이 일본보다 18분 길다.

3.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한일 근로자가정 부부의 수입노동시간 비교

1) 평일

수입노동시간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 우선 직장에서의 순수한 근무시간만을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전일제 취업주부의 남편이 9시간 40분, 전업주부의 남편이 9시간 25분, 그리고 시간제 취업주부의 남편이 가장 짧은 8시간 53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시간제 취업주부 남편의 근무시간이 가장 길고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의 근무시간이 가장 짧다. 양국 남편의 근무시간을 비교해 보면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에만 한국의 남편이 길고 시간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가정의 경우에는 일본의 남편이 길다. 반면에 취업한 부인의 근무시간은 양국간에 별 차이가 없다. 한편 통근시간은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에 있어 한국이 일본보다 20분 정도 길다.⁵⁾ 통근시간은 한일 양국 모두에 있어 남편이 부인보다 21분~51분 긴 것으로 나타나 부부가 취업한 경우 대체로 부인의 직장과의 거리가 남편보다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부부의 통근시간의 차이는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이를 볼 때 시간제로 취업하는 부인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집과의 거리를 특

〈표 4〉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부부의 수입노동시간 비교

(단위 : 시:분)

	한국						일본					
	전일제 (N=82)		시간제 (N=25)		전업주부 (N=99)		전일제 (N=74)		시간제 (N=28)		전업주부 (N=27)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평일 수입노동시간												
근무	9:40*	7:30	8:53	5:12	9:25	0:00	9:13	7:39	9:57	5:02	9:54	0:00
집에서 하는	0:06	0:08	0:04	0:29	0:05	0:23	0:10	0:04	0:08	0:08	0:03	0:45
직장관계 일												
통근	1:45*	1:24***	2:02	1:12	1:36	0:02	1:29	1:00	1:43	0:52	1:33	0:00
평일 소계	11:31*	9:02	10:59	6:53	11:06*	0:25	10:52	8:42	11:47	6:02	11:31	0:45
휴일 수입노동시간												
근무	0:33	0:21	0:49	1:32*	0:44	0:00	0:19	0:06	0:29	0:09	0:00	0:00
집에서 하는	0:05	0:00**	0:11	0:00	0:03	0:01	0:21	0:10	0:04	0:01	0:04	0:04
직장관계 일												
통근	0:11	0:03	0:02	0:11*	0:08	0:01	0:04	0:01	0:07	0:01	0:02	0:00
휴일 소계	0:49	0:24	1:02	1:43*	0:56***	0:01	0:44	0:17	0:40	0:12	0:06	0:04

히 많이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집에서 하는 직장관계 일이나 부업에 우리나라는 시간제 취업주부가 29분, 전업주부가 23분을 소비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전업주부가 45분 소비하고 있다.

2) 휴일

한국 부부의 휴일 근무시간은 일본 부부보다 대체로 길다. 그 차이는 특히 남편의 경우에는 전업주부 가정에서, 부인의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에서 크게 나타난다. 즉 일본의 전업주부 가계의 남편은 휴일에 전혀 근무하지 않는데 비해 한국의 남편은 49분을 근무시간에 할애하며, 일본의 시간제 취업주부는 휴일에 9분을 근무에 보내는데 반해 한국의 시간제 취업주부는 1시간 32분을 근무에 할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부인이 시간제로 근무할 때 평일과 휴일의 구분이 아직 모호하다는 것과, 또 일본은 휴일

을 철저히 쉬는 근무체계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4.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한일 근로자가정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비교

1) 평일

양국의 평일의 가사노동시간을 세부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표 5〉에서와 같이 몇몇 항목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남편의 경우 일본의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이 시간양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참여할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가사과업에 참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남편들은 자녀돌보기에 하루 8~15분 보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가사과업은 거의 하지 않는데 비해, 일본의 전일제 취업주부의 남편은 자녀돌보기 뿐 아니라 조리와 세탁, 청소, 설거지, 시장·은행·관공서일 등 여

5) 이는 한국의 교통사정이 일본보다 혼잡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보다는 본 연구에서 일본의 조사대상자가 교통조건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비교

(단위 : 시:분)

	한국						일본					
	전일제 (N=82)		시간제 (N=25)		전업주부 (N=99)		전일제 (N=74)		시간제 (N=28)		전업주부 (N=27)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평일 가사노동시간												
조 리	0:01**	1:06	0:00	1:19	0:00	1:46	0:06	1:06	0:01	1:28	0:01	1:37
설거지	0:04	0:21**	0:00	0:37	0:02	0:39***	0:10	0:30	0:02	0:41	0:01	1:04
청소·주생활관리	1:01	0:26***	0:02	0:44	0:02	1:03	0:04	0:09	0:00	0:35	0:00	0:54
세탁·의생활관리	0:00***	0:14**	0:00	0:26	0:01	0:41	0:11	0:25	0:01	0:38	0:00	0:46
재봉·뜨개질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1	0:00	0:06	0:00	0:07
자녀돌보기	0:15	1:00	0:13*	0:51	0:08	2:14	0:17	1:00	0:01	0:41	0:11	1:57
가족돌보기	0:01	0:05	0:00	0:07	0:00**	0:11	0:00	0:03	0:00	0:05	0:01	0:26
부모나 친척관련 일	0:00	0:01	0:00	0:00	0:00	0:04	0:00	0:00	0:00	0:00	0:00	0:02
시장·은행·관공서 일보기	0:00*	0:07**	0:03	0:13	0:00*	0:56	0:02	0:15	0:00	0:20	0:06	0:46
평일 소계	0:22**	3:20	0:17	4:16	0:13	7:34	0:50	3:30	0:05	4:35	0:19	7:38
휴일 가사노동시간												
조 리	0:02***	1:23	0:01	1:22	0:04	1:27	0:12	1:19	0:17	1:16	0:05	1:18
설거지	0:01***	0:28***	0:00*	0:32*	0:02*	0:29***	0:12	0:45	0:06	0:48	0:07	0:52
청소·주생활관리	0:30	0:50	0:06	0:32	0:20	0:43	0:27	0:50	0:08	0:41	0:27	0:52
세탁·의생활관리	0:04***	0:37*	0:03	0:22**	0:02*	0:25*	0:25	0:53	0:02	0:51	0:10	0:45
재봉·뜨개질	0:00	0:02	0:00	0:00	0:00	0:00	0:00	0:04	0:00	0:06	0:00	0:06
자녀돌보기	0:46	0:53	0:32**	0:46	0:28	0:47	0:44	1:09	0:06	0:54	0:56	1:16
가족돌보기	0:00	0:01*	0:00	0:01	0:03	0:04	0:04	0:04	0:00	0:00	0:06	0:09
부모나 친척관련 일	0:34	0:38	0:17*	0:18	0:23	0:19	0:12	0:16	0:00	0:05	0:21	0:26
시장·은행·관공서 일보기	0:11***	0:31***	0:08*	0:26**	0:15*	0:35	0:44	1:02	0:28	1:04	0:39	0:49
휴일 소계	2:08	5:23*	1:08	4:18*	1:38***	4:47**	3:00	6:21	1:07	5:49	2:51	6:32

러 가사과업에 고루 참여하고 있다.

부인의 경우에는 청소에는 한국의 부인이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반해 설거지, 세탁, 재봉에는 일본의 부인이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 양국 모두에 있어 부인의 취업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가사과업은 자녀돌보기이며, 이밖에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비교적 신축성이 큰 가사노동 항목은 청소, 세탁, 가족돌보기, 시장보기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부가 취업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자녀돌

보기 시간을 가장 많이 줄이고 다음에 청소나 세탁 시간을 줄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휴일

양국 부부의 휴일 가사노동을 세부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남편들은 자녀돌보기, 부모나 친척 관련 일, 청소 등의 한정된 영역에만 참여하는데 비해 일본의 남편들은 위 영역 뿐 아니라 시장보기, 청소, 세탁 등 다양한 과업에 고르게 참여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남편은 식사준비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데 비해 일본의 남편들은 식사준비에도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근무형태별로 비교해 보면,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의 경우 자녀돌보기와 청소는 비슷하고, 부모 관련 일에서는 한국의 남편이, 조리, 설거지, 시장보기와 세탁에는 일본의 남편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시간제 취업주부 남편의 경우에는 양국 모두 1시간 정도의 적은 시간만을 가사노동에 배분하는데, 세부 항목별로는 한국의 남편은 자녀돌보기와 부모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일본의 남편은 시장보기, 식사준비, 설거지를 많이 한다. 전업주부 남편의 경우에는 설거지, 세탁, 자녀돌보기, 시장보기에 일본의 남성들이 한국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인의 경우에도 일본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한국보다 많고 특히 전업주부에 있어서 차이가 큰데, 이는 가사과업에 그대로 반영되어 설거지, 세탁, 시장보기 등에서 일본의 전업주부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 또 전업주부가 평일에 비해 휴일에 가사노동시간을 줄이는 정도에 있어서도 한국이 훨씬 크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한국의 전업주부는 부모 관련 일만 제외하고는 휴일에 전 가사과업을 줄이고 특히 자녀돌보기를 많이 줄여 1시간 27분을 줄인다. 일본의 전업주부는 부모 관련 일과 시장보기를 제외한 모든 과업을 줄이지만 그 정도는 우리나라 주부만큼 두드러지지 않는다. 일본의 전업주부도 자녀돌보기를 가장 많이 줄여 41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주부, 특히 전일제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와는 반대로 휴일에 가사노동을 더 늘이는데, 일본의 취업주부가 한국보다 더 많은 시간을 증가시킨다. 한국과 일본의 취업주부 모두에 있어 청소, 세탁, 부모 관련 일, 시장보기 등이 평일보다 휴일에 2배 이상 증가하며,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부모 관련 일과 시장보기가, 일본에서는 청소와 시장보기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취업주부들은 평일에 대충 하거나 거의 못하는 청소와 세탁, 부모 관련 일, 그리고 시장보기를 휴일에 몰아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취업주부는 시

장보는데 휴일에 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또 남편의 시장보기 시간도 상당히 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일본의 부부에게는 휴일에 함께 시장을 보는 것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5.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한일 근로자가정 부부의 사회문화적 시간 비교

1) 평일

양국 부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표 6>과 같이 우리나라는 TV·라디오 시청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가족과의 단란 시간이 전체 사회문화적 시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인의 근무형태별로 양국 남편을 비교해 보면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의 경우에 모임이나 교체, 강습, 운동에 있어서는 한국의 남편이, 취미오락활동과 가족 단란에 있어서는 일본의 남편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시간제 취업주부 남편의 경우에는 한국 남편이 TV시청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일본의 남편은 한국과 달리 종교활동에 전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전업주부 남편에 있어서도 한국의 남편이 역시 TV시청에 2배 가량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일본의 남편은 취미오락활동에 긴 시간을 보낸다. 따라서 한일 남편간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TV시청과 취미오락으로 한국의 남편은 TV시청에, 일본의 남편은 취미오락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겠다.

부인의 경우, 한일 양국 모두 전일제 취업주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은 전업주부의 반도 안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TV시청, 독서, 운동·산책, 교체 등의 시간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취미오락, 교체, 통근의 이동에서 비롯된다.

부인의 근무형태 별로 양국 부인을 비교해 보면, 우선 전일제 취업주부의 경우 우리나라 주부가 역시 TV시청과 강습수강에 일본 주부보다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일본 주부는 가족 단란에 한국 주부보다 3배 이상의 시간을 투입하고 신문잡지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시간제 취업주부의 경우에만

〈표 6〉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부부의 사회문화적 시간 비교

(단위 : 시:분)

	한국						일본					
	전일제 (N=82)		시간제 (N=25)		전업주부 (N=99)		전일제 (N=74)		시간제 (N=28)		전업주부 (N=27)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평일 사회문화적 시간												
TV·라디오시청	0:56	0:57**	1:13***	1:07	1:03*	2:01**	0:48	0:32	0:26	0:59	0:36	1:17
신문·잡지	0:12	0:06*	0:12	0:04***	0:14	0:20	0:14	0:12	0:17	0:23	0:12	0:27
독서	0:07	0:08	0:14	0:11	0:12	0:26	0:09	0:06	0:10	0:12	0:03	0:11
취미·오락활동	0:05	0:04	0:00*	0:00*	0:08	0:16	0:11	0:06	0:13	0:14	0:20	0:21
강습·수강·학습	0:18	0:09*	0:08	0:08	0:14	0:14	0:09	0:01	0:11	0:06	0:05	0:12
운동·산책	0:08	0:05	0:05	0:07	0:09	0:18	0:03	0:01	0:03	0:02	0:04	0:15
가족과의 단란	0:09***	0:10***	0:11	0:09	0:16	0:21*	0:30	0:35	0:15	0:34	0:16	0:38
모임이나 교제	0:26	0:07	0:19	0:31	0:12	0:28	0:10	0:09	0:36	0:08	0:08	0:22
사회적활동·소비자활동	0:00	0:02	0:11	0:03	0:00	0:05	0:00	0:03	0:00	0:03	0:00	0:03
종교활동	0:04	0:04	0:10	0:18*	0:04	0:12	0:02	0:01	0:00	0:01	0:00	0:09
통근외 이동	0:02	0:07	0:04	0:06	0:04	0:09***	0:04	0:10	0:06	0:14	0:04	0:37
기타	0:00**	0:01	0:00	0:02	0:00*	0:04	0:03	0:05	0:04	0:04	0:01	0:01
평일 소계	▽2:27	▽2:00	2:46	3:02	▽2:36***	4:54	2:24	2:01	2:21	3:31	2:01	4:34
휴일 사회문화적 시간												
TV·라디오시청	3:02***	2:23***	3:39	2:20**	2:58***	3:05***	1:58	1:20	0:05	1:22	1:39	1:07
신문·잡지	0:17***	0:04***	0:16*	0:12*	0:19	0:05	0:27	0:18	0:30	0:34	0:23	0:12
독서	0:14	0:06	0:16	0:02**	0:17	0:10	0:14	0:15	0:31	0:27	0:23	0:08
취미·오락활동	0:22**	0:12*	0:14*	0:05**	0:33*	0:23	1:13	0:39	0:55	0:46	1:33	0:37
강습·수강·학습	0:16	0:01*	0:02	0:06	0:16	0:01	0:18	0:07	0:13	0:01	0:09	0:06
운동·산책	1:02	0:49**	1:19	0:23	1:28	0:48	0:43	0:10	1:24	0:20	0:22	0:23
가족과의 단란	0:25***	0:25***	0:46	0:37*	0:53*	0:51	1:32	1:10	0:53	1:12	1:35	1:07
모임이나 교제	0:45*	0:26	0:24	0:18	0:30	0:28	0:17	0:21	0:27	0:29	0:45	0:39
사회적활동·소비자활동	0:08	0:08	0:09	0:09	0:04	0:06	0:09	0:01	0:00	0:00	0:01	0:01
종교활동	0:57**	0:48***	1:29*	1:14	0:40*	0:50**	0:09	0:10	0:02	0:02	0:00	0:03
통근외 이동	0:40	0:34	1:01	0:50	0:48	0:24**	0:56	0:42	1:27	1:05	0:56	0:57
기타	0:02**	0:01***	0:00	0:03	0:00	0:05	0:17	0:17	0:03	0:06	0:07	0:07
휴일 소계	▽8:10	▽5:57	9:25	6:26	▽8:46**	7:16**	8:13	5:31	9:28	6:24	7:53	5:28

일본의 부인이 한국보다 29분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항목별로는 교제와 종교활동에서는 한국의 부인이, 가족단란, 신문잡지, 취미오락에서는 일본 부인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한국 부인이 TV시청과 독서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을 보내며, 일본의 전업주부는 역시 가족단란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통근외 이동에도 상당량의 시간을 보낸다. 따라서 한일 양국 부인간에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의 부인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TV에 역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일본의 부인은 신문잡지, 가족

단란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이다.

2) 휴일

TV시청은 한국과 일본의 남편 모두에 있어 휴일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활동이고, 종교활동과 운동산책은 한국의 남편에게서, 취미오락과 가족단란은 일본의 남편에 있어서 특히 휴일 증가가 두드러진 활동이라고 하겠다. 한편 부인에 있어서는 한국의 부인이 TV시청, 종교활동, 운동산책을 휴일에 늘이는데 반해 일본의 부인은 취미오락과 가족단란을 증가시킨다.

부인의 근무형태별로 양국의 남편을 비교해 보면,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의 경우에 한국은 TV 시청시간이 1시간 이상 길고, 교제, 운동산책이 일본보다 긴 반면, 일본은 가족단란시간과 취미오락시간이 훨씬 길다. 시간제 취업주부 남편의 경우 일본의 남편은 종교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며, 한국의 남편에 비해 취미오락에 42분, 신문잡지와 독서에 각각 15분을 더 보낸다. 한국의 전일주부 남편은 일본에 비해 TV 시청과 운동·산책, 종교활동에의 시간투입이 두드러지는 반면, 일본의 남편은 취미오락과 가족단란에 한국보다 많은 시간을 보낸다.

양국 부인의 항목별 시간을 부인의 근무형태별로 대응하여 비교해 보면, 전일제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한국 부인이 TV시청, 종교활동, 운동산책 등에서 일본 부인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며, 일본 부인은 가족단란과 취미오락, 신문잡지, 독서, 강습수강에 한국부인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시간제 취업주부의 경우 한국 부인이 TV시청과 종교활동에서 일본 부인보다 1시간 정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반면, 일본 부인은 취미오락, 가족단란, 독서, 신문잡지 등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 전일주부의 경우에 1시간 48분으로 나타난 큰 격차는 주로 한국 부인이 TV 시청과 종교활동에 보내는 많은 시간에 기인한다. 반면에 일본 부인은 통근의 이동과 신문잡지에만 시간을 더 보낼 뿐이다.

부인의 근무형태별로 양국 부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을 함께 비교한 결과 한일 양국 모두 부부가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여가시간이 부부간에

보완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TV시청, 종교활동, 운동산책에서는 한국의 부부가 길고, 가족단란, 취미활동, 통근의 이동에서는 일본부부가 긴 것으로 나타나, 한국은 소극적 여가나 개인 중심적 여가로 휴일을 소일하는 반면, 일본은 가족 중심의 여가와 집밖에서 즐기는 여가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당 휴일이 하루이기 때문에 휴일을 주중에 쌓인 피로의 회복을 위한 휴식적 활동에 주로 보내는데 반하여, 일본의 경우는 주당 휴일이 2일인 비율이 높고,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에 힘입어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VI. 결론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 근로자부부의 생활시간에 있어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여 결론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 부부의 생활시간을 크게 4가지 생활영역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한국과 일본 양국은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집단간에 비슷한 생활시간 구조를 보였다. 평일과 휴일의 생활영역별 생활시간 배분양에 있어 양국이 유사하였으며, 특히 휴일에 남편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사회문화적 시간에 배분하는데 반해 부인은 집단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나 대체로 비슷한 정도의 시간을 가사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에 양분한 점과, 또 가사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이 상호 대체적인 관계를 갖도록 배분한 점에서도 양국이 같았다.

둘째, 한국이나 일본 모두 전일제 취업주부의 평일 총노동시간이 12시간을 넘어 다른 집단의 부인이나 남편에 비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 전일제 취업주부의 노동부담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유사하였다.

셋째, 가사노동시간이 남편과 부인 모두 취업한 경우 평일에 비해 휴일에 길어지는 점에 있어서 양국이 유사하였다. 이를 통해 취업한 남편이나 부인은 양국 모두 평일에 직장관계로 소홀히 하는 집안일을

휴일에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일본의 남편 모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가사과업은 자녀돌보기라는 점에서 같았으며, 부인의 경우 취업한 부인은 식사준비, 자녀돌보기 순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비취업주부는 자녀돌보기, 식사준비의 순으로 시간을 할당하는 점에서도 양국은 유사하였다. 이를 볼 때 양국 모두 부인이 취업할 경우 자녀양육 과업을 타인이나 시설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한국과 일본 모두 사회문화적 시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TV·라디오 시청이며, 평일에 비해 대폭 증가한 사회문화적 시간의 많은 부분이 역시 TV·라디오 시청이라는 점에서 같았다. 다음으로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에 있어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이 한국에 있어서는 가장 긴 반면 일본에 있어서는 가장 짧았다. 따라서 수입노동시간이 한국의 부부간에는 보완적 관계를, 일본의 부부간에는 대체적 관계를 보인다고 하겠다. 또 휴일의 수입노동시간은 한국의 부부에 있어 긴 것으로 나타나 평일-근무, 휴일-휴식의 직무체계가 한국보다 일본이 더 잘 확립되어 있다고 하겠다.

둘째, 휴일의 가사노동시간에 있어 양국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특히 일본의 부부가 보다 많은 시간을 집안일 하는 데 보내고 있었다. 일본 남편의 휴일 가사노동은 시간양에서 길 뿐 아니라 가사과업의 종류에 있어서도 다양하였다. 특히 일본 전업주부의 휴일 가사노동시간이 한국 전업주부보다 2시간 가까이 긴 것이 양국 주부의 시간배분구조의 차이를 야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휴일에 한국 부인에 있어서는 사회문화적 시간이 가사노동시간보다 길었으나 일본 부인에 있어서는 시간제 취업주부만 제외하고는 가사노동시간이 사회문화적 시간보다 길었다. 이로써 일본의 주부들이 한국의 주부에 비해 휴일에 여가보다는 집안일에 더 많이 몰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사회문화적 시간의 세부항목에 있어서 평일에는 한국의 부부에게는 TV·라디오 시청 시간이,

일본의 부부에게는 가족 단란의 시간이 길었다. 휴일에는 한국의 부부에 있어서는 TV시청, 종교활동, 운동산책시간이 길고, 일본의 부부에 있어서는 가족 단란, 취미오락활동, 통근외 이동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나 양국간의 여가문화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다섯째,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에 있어 일본 남편은 수입노동에는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가사노동은 거의 하지 않는 가장 보수적인 시간배분을 보여 주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시간제 취업주부 남편은 시간배분에 있어 다소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기는 했어도 대체로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과 전업주부 남편의 중간적인 성격을 보여주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부인의 시간제 취입이 일과 가사노동을 겸할 수 있고, 가계소득에도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바람직한 주부 취업유형으로 권장하는데, 시간제 주부취입 가계에서 나타나는 부부간의 성차별적인 시간배분을 고려할 때 일본정부가 시간제 취입에 부여하는 가치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간제 취입의 위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할 때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아 유사한 시간사용구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으나, 양국간에 휴일제도, 부인의 시간제 근무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차이로 인한 시간사용상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국 근로자부부의 시간사용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휴일의 시간사용은 평일에 비하여 더욱 정밀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배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양국 부부의 시간구조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양국의 생활문화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앞으로 생활시간영역별 시간배분 뿐 아니라 부부의 의식에 관한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생활의 실제와 문제점을 비교·분석하고 나아가서 양국의 생활문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영옥(1995). 여성고용의 불안정화 추이와 정책 과제. 서울:한국여성개발원.
- 2) 농촌진흥청(1978,1983,1988,1993).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 보고서.
- 3) 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1994). 도시근로자 가정의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 4) 조희금(1990). 농촌주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63-180.
- 5) 조희금(1993).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3), 101-112.
- 6)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생활시간구조와 시간갈등.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 7) 한국여성개발원(1995). 1995 여성통계연보국.
- 8) 한국방송공사(1981,1983,1985,1987,1990,1993). 국민생활시간.
- 9) 鈴木泰(1993). 生活時間の日韓比較. NHK放送文化研究所 世論調査部(1995). 生活時間の國際比較. 東京:大空社.
- 10) 矢野眞和(1996). 生活時間の社會學. 東京:東京大學出版會.
- 11) アンドル・ハ-ベイ(1994). 生活時間歐米との比較. NHK放送文化研究所 世論調査部(1995). 生活時間の國際比較. 東京:大空社.
- 12) 伊藤セツ・天野寛子・森ます美・大竹美登利(1983). 生活時間. 東京:光生館.
- 13) 伊藤セツ・天野寛子 共編著(1988). 生活時間と生活様式. 東京:光生館.
- 14) 伊藤セツ・天野寛子・森ます美・堀内かおる(1993). 生活時間と生活文化. 東京:光生館.
- 15) Szalai, A.(1972). *The Use of Time*. Paris:Mouton & Co.